

http://dx.doi.org/10.17703/JCCT.2019.5.4.29

JCCT 2019-11-04

영상매체에 형상화 된 시인 ‘이상’ 표상 연구 - 영화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 드라마 <이상 그 이상>을 중심으로

A Study on Yi Sang Representation in Media -Focusing on the cinema <Secrets of The Architecture Infinite Cube> and the drama <Yi Sang, More than Yi Sang>

손미영

Son, Mi-young

요약 이상의 시와 그의 표상은 다양한 영상매체에서 활용되고 있다. 매체 및 장르의 특성에 따라 시인 이상의 표상과 그의 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선택되며 변주된다. 문학이 다양한 매체들과 통섭하는 현대에서 한 시인의 초상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텍스트가 한 인물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읽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시인 이상의 표상이 다양한 영상매체에서 활용된 양상을 검토하였으며, 각 텍스트들에서 시인 이상이 표상화되는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영화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과 드라마 <이상 그 이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영화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에서는 이상의 시를 사건의 단서가 숨겨진 퍼즐로 활용하고 있다. 이 영화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상의 ‘천재’ 표상을 활용하여 이상의 비밀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서사를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이 영화는 추리스릴러라는 장르의 관습에 충실한 방식으로 이상을 표상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드라마 <이상 그 이상>은 시인 이상을 내면에 열정을 지닌 청년으로 새로이 표상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냉소적인 태도 또한 민족과 시대를 향한 애정의 이면으로 재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로 다른 표상의 방식은 ‘이상’이라는 문학가의 대중적 인식과 새로운 표상화 시도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주요어 : 문학, 시, 시인, 영화, 드라마, 시인 이상, 표상

Abstract Lee Sang's poems and his portraits are being used in various video media.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um and genre, the representation of the poet or higher and his poems are selected and variations in different ways. In a modern era where literature communicates with various media, reviewing how a poet's portrait is shaped is also the process of reading what text wants to convey to the public through a single person. This study examined aspects in which representations of poets or higher were utilized in various image media, and compared and analyzed how poet aberrations are represented in each text. In particular, the discussion centered on the movie <Secrets of The Architecture Infinite Cube> and the drama <Yi Sang, more than Yi Sang>.

In the movie <Secrets of The Architecture Infinite Cube>, the above poem is used as a hidden puzzle. The film uses the popularly known 'genius' representation to track down Yi Sang's secret. Because of this, the film represents its ideal in a way that is faithful to the genre's custom of Thriller. In comparison, the drama <Yi-sang, More than Yi Sang> was about to re-emerge as a young man with a passion for the inner workings. The cynical attitude shown in the above text is also a reflection of the love for the nation and the times. These different typographical methods are worth noting in terms of the literary man's public perception of "Yi-sang" and the strategy of the new portrait attempt.

Key words : Literature, Poem, Poet, Cinema, Cinema, Representation, Yi Sang

*정희원,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 (주저자)
접수일: 2019년 9월 2일, 수정완료일: 2019년 10월 1일
게재확정일: 2019년 10월 5일

Received: September 02, 2019 / Revised: October 01, 2019
Accepted: October 05, 2019

*Corresponding Author: myshon@kw.ac.kr
Dept. of Ingenium, Kwang woon Univ, Korea

1. 서론

시인 이상(李霜)을 수식하는 단어들은 대개 그의 기행과 이해하기 어려운 시에 연관되어 있다. 박제가 된 천재와 다다이스트, 기벽가 등이 그것이다. 이는 한국문학에서 이상이라는 한 문학가가 무엇으로 표상되었으며, 대중 일반에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때문에 그간 이상에 관한 연구는 그의 시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연구의 경향은 이상의 시를 독해가 필요한 텍스트이자 퍼즐로 인식하게 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으며, 더 나아가 이상문학을 ‘순수문학’의 극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공신력 있는 한국문학상인 이상 문학상의 성격이나 이 문학상이 일본의 아쿠타가와상과 비견되는 것 또한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인 이상이 어떻게 표상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인의 표상이 현대 사회에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의 시 작품 뿐만 아니라 그를 기념하는 방식, 그리고 대중매체에서 그가 표상되는 방식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대중예술이 다양한 장르들의 통섭을 보여주고 있다는 기존의 논의[1]를 고려한다면, 시인 이상의 표상이 영상매체에서 활용되는 양상과 그 표상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과 이상의 시를 소재로 하는 대중 영상물들을 주요한 해석의 대상으로 삼고, 한 시인과 그의 시세계가 어떻게 영상화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7년에 개봉한 영화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과 2013년에 방영된 단편 드라마 <이상 그 이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영화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은 1996년 한국영화진흥공사 주최의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소설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을 영화화 한 것으로, 이상의 시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을 밝히고자 하는 인터넷 동호회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영화이다. 비록 대중의 지지를 광범위하게 얻지는 못하였으나, 한국 시를 영화의 주요 소재로 삼아서 서사를 전개하고 있는 희소한 영상매체로서 문학과 영상간의 통섭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는 텍스트이다. 본고는 영상매체에 표상된 이상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므로 영화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을 주로 논하되,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 또

한 참조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한편 드라마 <이상 그 이상>은 이상을 비롯하여 화가 구본웅, 소설가 김유정과 박태원을 주변 인물로 설정하여 예술가의 초상을 그려내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기 경성의 풍경까지 짙게 영상화한 작품이다. 이에 이 드라마는 2013년 국제 드라마페스티벌에서 수상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영상 텍스트가 추리극의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시를 일종의 퍼즐로 인식하고 해석하려는 행위가 영화의 서사 구조로 연결되었다는 기존의 논의를 감안한다면, 시인 혹은 문학가 이상의 표상과 그 시의 이미지가 다양한 장르에서 변주되고 있는 구체적 양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95년에 개봉한 영화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에서 그치지 않고, 2013년의 <이상 그 이상>에 이르기까지 시인 이상을 활용한 대표적 영상물이 모두 추리와 모험 서사를 택하고 있다. 이상이라는 한 시인이 영상 매체에서 어떻게 표상화 되었으며 이를 영상화하는 과정에서 이상의 이미지가 서사의 전개 및 장르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연구는, 대중의 인식이 장르적 통섭의 양상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이상의 시와 소설 텍스트에 관한 해석적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문인으로서의 이상이 표상화되고 기억되는 방식에 관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이상에 관한 회고담과 기념식, 공간화 등을 통해 이상이 기억되고 표상화되는 과정에 관한 주요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유의미한 논의[2]를 포함하여 영상물에 관한 연구 또한 매우 드물다. 특히 개봉작인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에 관한 논의는 단 한 편의 의미 있는 논문[3] 외에는 전무하며, 드라마 <이상 그 이상>에 관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영화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을 비롯하여 <이상 그 이상>에서 이상이라는 인물을 표상화하고 활용하는 구체적 양상을 분석한다. 이로써 문학가 이상이 영상매체에서 표상화되는 방식과 그 특성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문학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상 시인이 어떻게 다양한 미디어 텍스트들을 관통하면서 변주되고 새로이 표상되는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는 문학적 인물이 영상화 될 때에 선택하는 서사적 전략에 관한 한 흥미로운 양상을 제시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II. 장르에 충실한 표상화 전략 -영화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 분석

영화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은 제목에서부터 드러나듯이 이상의 시 「건축무한육면각체」 연작에 숨겨진 비밀을 찾는 서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영화는 연작 시편들 중 「AU MAGASIN DE NOUVEAUTES」를 주로 차용하여, 시의 내용을 단서로 하여 시인이자 건축가였던 이상이 남긴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서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는 영화에 있어서 숨겨진 사건을 풀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인터넷 동호회 <MAD 이상 동호회>의 구성원들은 이 시가 식민지시기 일본제국이 숨긴 금괴에 관한 단서를 조합한 것이라는 판단 하에, 숨겨진 진실에 접근하고자 시를 해석한다. 즉 영화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에서 이상의 시는 풀어야 하는 퍼즐로서 제시됨으로써 미스터리한 분위기와 함께 추리스릴러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四角形の内部の四角形の内部の四角形の内部の四角形の内部の四角形

四角이난圓運動의四角이난圓運動의四角이난圓

비누가通過하는血管의비눗내를透視하는사람

地球를模型으로만들어진地球儀를模型으로만들어진地球

去勢된洋襪(그女人의이름은위어즈였다)

貧血緋布. 당신의얼굴빛깔도참새다리같습네다.

平行四邊形對角線方向을推進하는莫大한重量.

마루세이유의봄을 解纜한코티香水가마지한東洋의가을.

快晴의空中에鵬遊하는Z伯號. 蛔蟲良藥이라고쓰여져 있다.

屋上庭園. 猿猴를흉내내고있는마드무아젤.

彎曲된직선을직선으로疾走하는 落體公式.

時計文字盤에XII에내리워진 二個의 侵水된黃昏.

도아의内部의도아의内部의鳥籠의内部의카나리아의内部의嵌殺門戶의内部의인사.

食堂의 門간에 方今到達한雄雄과같은 朋友가헤여진다.

검정잉크가얹질러진角雪糖이三輪車에積荷된다.

名御를짓밟는軍用長靴. 街衢를疾驅하는造花金蓮.

위에서내려오고밑에서올라가고위에서내려오고밑에서올라간사람은밑에서올라가지아니한위에서내려오지아

니한밑에서올라가지아니한위에서내려오지아니한사람.

-이상, 「AU MAGASIN DE NOUVEAUTES」 일부[4]

「AU MAGASIN DE NOUVEAUTES」는 이상의 연작 「건축무한육면각체」 중의 한 편이다. 반복과 변형으로 구성된 이 시는, 새로운 상점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제목이 의미하고 있듯이 식민지 도시 경성에 새로 등장한 백화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를 테면 다케나카 이쿠가 일본에서 발표한 「백화점」이라는 시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이 시를 해석하거나,[5] 식민지 소비자본주의의 메카인 백화점을 식민 자본주의의 한 표상이자 랜드 마크로서 포착하고[6], 혼돈과 미로의 공간으로 투시하는 상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대표적이다.[5] 근대 국가의 공간 배치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감안하여 볼 때 백화점이라는 새로운 공간 또한 식민지 신민들의 지배 장치일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가 이상이 근대적 건물인 백화점의 상징성을 폐쇄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화려함 속에 감춰진 허상과 현실에 대한 고발이다.

이러한 까닭에 폐쇄적이고도 미로와 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는 이 시는 영화에서도 일본 제국의 비밀을 푸는 열쇠로서 기능한다. 여러 장면에서 이 시는 해석되고 변주되며, 인물들은 모두 이 시를 해독하는 데에 집중한다. 즉, 이 영화의 서사는 이 시 한 편을 해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은 영화의 도입에서부터 급박한 추격 장면과 함께 이 추리 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키워드를 제시한다. 바로 음성사서함에 남겨져 있는 ‘덕희’의 “하야시 나츠오가 살아있었어”와 “이상의 시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해”라는 대사가 그것이다. 이들은 ‘MAD 이상 동호회’의 회원들로 건축 기사였던 이상이 옛 일본제국의 금괴를 보관하는 장소 건축에 관여하였으리라는 가정 하에 비밀을 추적해 나가고 있었다. 영화에 따르면 이 건물, ‘건축무한육면각체’는 미로로서 금괴를 보관하는 동시에, 한민족의 기운을 누르고 봉인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따라서 ‘Z백호’팀이 이 건물을 찾아 파괴하려 시도하였으나 이들 모두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의 죽음에 관한 인터넷 소설을 릴레이 연재하던 이들이 한 명씩 죽게 되고, 주인공 용민과 태경은 도입부의 음성 메시지만 남기고 사라진 덕희를 찾아 이상의 시가 가리키는 장소로 향한다. 이 과정에서 이상의 시는 일본 제국이 동아시아에서

착취한 금괴를 숨겨둔 미로의 위치를 가리키며, 두 중심 인물은 서울의 지도를 놓고 이상의 시를 따라 선을 그려 그 위치를 발견해낸다.

영화가 이 시를 활용하여 비밀을 풀어나가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용민은 서울 지도 위에 삼각산-인왕산-남산-북악산을 잇는 사각형을 그린 뒤, 다시 내부에 사각형을 반복하여 그려 넣는다. 인용한 시의 1행 “四角形の内部의四角形の内部의四角形の内部의四角形の内部의四角形”이 그대로 영화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9행과 12~13행은 지하미로에서 방향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며, 건물을 폭파하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다. 즉, 영화 속에서 이상의 시는 사건의 단서이자, 일종의 퍼즐로서 작용한다. 이는 미로 구조를 활용함으로써, 이상 시를 효과적으로 서사화하고 있는 한 예이다. 즉, 임준서가 평가하는 것처럼 구조 변용을 통해 시인의 문학적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문학의 성공적 각색이라 할 수 있다.[3] 이는 조악한 촬영 세트를 비롯하여 영화 말미의 어색한 특수효과를 등장하게 한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원작 소설의 서사를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기술적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함이 옳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화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은 <MAD 이상 동호회>의 인물들이 이상의 죽음과 관련한 소설을 연재하는 장면들을 보여줌으로써 텍스트 내부의 텍스트를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다. 이들은 동호회의 인원을 늘리기 위해 이상의 죽음과 2년간의 공백에 관한 소설을 순서대로 연재한다. 이 연재는 당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진행되며,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얻었다. 마치 원작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이 하이텔 통신 서버에서 연재되었던 것처럼, 영화 속의, 그리고 원작 텍스트 속의 텍스트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은 인터넷 상에서 연재되고, 사람들에게 읽힌다. 이들이 연재하였던 소설의 내용은 모두 진실로 밝혀지게 된다. 이로써 텍스트와 텍스트, 텍스트와 현실 사이의 관계는 모호해진다. 원작 소설과 달리 영화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이 부분이다.

영화는 이러한 인터넷 매체를 통한 텍스트 생산의 방식을 오프닝 시퀀스에서도 표현한다. 타이핑되는 화면 속의 글자들처럼 등장시킨 뒤, 전원이 꺼지는 것처럼 페이드 아웃하는 방식으로 타이틀 롤을 소개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이 장면은 ‘덕회’가 터널 속을 달리며 계속해

서 접속하려 하지만 접속하지 못하는 영화의 도입으로 이어진다. 쫓기는 그의 모습은 이 영화가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임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더 나아가 이 장면은 용민과 태경이 있는 시끄러운 클럽의 음악소리와 오버랩되면서 급박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효과를 획득한다. 이렇게 장면을 오가며 활용되는 음악 또한 텍스트와 현실을 오가는 이 영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화의 도입부는 영화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 이 시 「AU MAGASIN DE NOUVEAUTES」의 구성을 차용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마치 소설 속에 소설이 등장하는 것처럼, 영화 텍스트 속에서도 소설 텍스트가 등장하고, 각 장면은 서로 뒤섞이며 통섭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은 이처럼 현실과 가상, 그리고 텍스트와 텍스트, 현실과 텍스트의 사이를 넘나들며 그 경계를 무화시킨다. 특히 이 영화가 발표되었던 시기가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던 1990년대 후반이었음을 참작한다면, 이러한 영화의 시도는 탈중심적 문학을 지향하였던 다다이스트 이상의 작업을 포스트모던의 관점에서 새로이 재구축하려 한 시도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후반부의 지나치게 갑작스러운 서사의 전개와, 과도한 민족주의, 그리고 부족한 특수효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이상의 문학을 영상화하고자 한 새롭고도 흥미로운 영상문화의 주요한 예시이다. 특히 이상의 문학이 지니고 있는 탈중심적 세계관을 1997년의 방식으로 새로이 재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상의 시와 문학 텍스트 자체를 일종의 퍼즐로 묘사하여 새로운 서사화를 꾀하였다는 점에서 고풍할 만한 텍스트이다.

III. 새로운 표상화의 시도

-드라마 <이상 그 이상> 분석

영화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이 이상의 문학 텍스트에 숨겨진 비밀을 쫓는 1990년대의 서사를 담아냄으로써 이상의 시를 영상화하고 있다면, 드라마 <이상 그 이상>은 시인 이상을 드라마 속의 중심인물로 선택하여 그의 표상을 이용해 서사를 전개해나가고 있다. 조선의 사라진 금괴의 행방을 추적하는 2013년작 드라마 <이상 그 이상>은 1970년대의 한 화방을 배경으로 하여 구분웅이 그린 시인 이상의 초상화를 판매하려는 한 인물의 등

장과 함께 시작된다. 남자의 회상을 따라 자연스럽게 식민지 시기의 경성으로 이어지는 이 드라마는 영화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처럼 서사의 내부에 서사가 존재하는 액자식 구성을 택하고 있다.

드라마가 지닌 액자식 구성에서 화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드라마의 도입부에서 이상의 초상화를 판매하려는 노신사이자, 다방 '제비'에서 급사인 '보이'로 일하였던 인물이다. 이 극 속 '보이'인 '수영'의 눈에 의해 포착된 시인 '이상'(조승우 분)의 모습은 그의 대사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자 "도통 알 수 없고" "한 마디로 그 이름처럼 이상한" 인물이다. 그가 쓴 시는 대중에 이해받지 못하며, 심지어는 본인 스스로 시가 실린 잡지에 불을 붙이기도 한다. 이처럼 회상을 통해 등장한 중심인물 '이상'은 대중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시를 쓰는 시인이자, 그가 일하는 다방 '제비'의 주인으로 그려진다. 그 시선에 포착된 시인 '이상'은 자신의 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와 식민지 조선에 대한 냉소에 가득 찬, 시대가 품지 못한 천재이다.

이 '이상한 인물'인 '이상'이 드라마의 본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계기는 다름 아닌 한 편의 이해할 수 없는 시이다. 그의 일본인 지인이 덕수궁 전각 수리 과정에서 발견한 이 수수께끼 같은 시는 대한제국 시절 고종이 숨겨 둔 금괴의 위치를 숨겨 둔 것이었다. 처음 단서가 담긴 시를 발견한 일본인 히로시는 누군가에게 살해 당하고, 범인으로 몰릴 뻔한 이상은 히로시의 연인이라 주장하는 여성 '한경애'(박하선 분)에게 도움을 받는다. 발견된 시 만큼이나 수수께끼에 싸여 있는 여성인 한경애는 히로시가 금괴의 행방을 찾는 인물들에 의해 살해되었음을 알리며, 그 시의 단서를 풀려고 하는 '이상'과 그의 친구에게 협력한다. 다방 '제비'에 모이는 '이상'의 주변 인물들, 이른바 당시의 '룸펜'들은 모두 문화계 인물들로, 김유정과 박태원, 그리고 화가 구분웅이다. 이들은 '이상'과 함께 시의 비밀을 파헤치고자 시를 하나의 수수께끼로 인식하고, 시가 가리키고 있는 장소로 추정되는 위치들을 짚어 나간다. 이 과정에서 금괴를 추적하는 조선총독부의 추격을 받게 되며 드라마는 점차 활극의 형식을 갖추어간다.

위의 장면들은 '이상'과 문인들이 시를 해석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된 시는 한 줄씩 읊어지며 인물들에 의하여 해석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다. 흥미로운 것은 극 중 '이상'이 시를 해석



그림 1. 드라마 <이상 그 이상>의 한 장면
Figure 1. A scene in a drama <Yi Sang, more than Yi Sang>



그림 2. 드라마 <이상 그 이상>의 한 장면
Figure 2. A scene in a drama <Yi Sang, more than Yi Sang>

하면서 보여주는 대사과 태도이다. "겨우 두 문장인데 알 수가 없다니. 이 양반이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건가"라거나 "이 시보다 내 시가 더 쉽네"라는 대사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분투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이상의 시를 읽는 독자들의 태도를 떠오르게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상의 시 오감도는 게재 직후 대중의 이해를 얻지 못해 연재가 중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상의 시는 일종의 불가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드라마 <이상 그 이상> 또한 이 장면을 통해 이상의 시를 마치 수수께끼처럼 해석이 필요한 텍스트로 인식되었음을 은유한다.

드라마는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상 시에 관한 일반적 고정관념에 대한 시각을 벗어나서 시 텍스트 전체를 조망할 것을 제의한다. 수수께끼의 시가 가리키는 장소가 식산은행임이 밝혀지는 두 번째의 장면에서 극 중 '이상'은 "시점을 옮겨야 했"다며 시를 해석하는 데에 중요한 것은 각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들의 시선으로 보는 인간들의 세상"처럼 시의 전체적인 구도였다고 말한다. 이는 이상의 시를 읽는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하여 각 단어의 의미를 해독

하고, 일종의 수학 문제처럼 대입하려 할 것이 아니라, 행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는 독서방식이 이상의 시를 읽는 유효한 접근법임을 제안한다. 이는 이상의 시를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로 설정하여 서사를 전개하였던 영화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과는 다른 방식의 텍스트 읽기이다.

이상의 시를 수수께끼처럼 의미를 은닉한 텍스트가 아니라, 시인이자 식민지시기를 살아가던 청년 이상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재조명하고자 하는 드라마의 시선은 극 중 '이상'을 형상화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드라마의 후반부에 이르러서 금괴를 은닉하였던 책임자의 딸임이 밝혀지는 한경애에게 '이상'은 “우리의 사명이 어찌니 조국의 운명이 어찌니 울분도 꽤나 토해 보셨겠죠. 헌데 말이오, 아가씨 그렇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더이까? 오히려 그럴수록 진실은 더 반대가 되지 않았소?”라고 되묻는다. 이에 한경애는 '이상'에게 그의 시를 읽었다며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온통 냉소와 절망뿐이었지만, 어쩌면 그건 선생이 누구보다 열망에 찬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 생각했었는데...” 한경애의 대사는 이 드라마가 형상화하고자 하는 시인 이상의 이미지를 분명히 한다. 한경애와의 대화 장면 이후, 이어지는 구분웅과의 대화에서도 드라마가 형상화하고자 하는 이상이 드러난다. 이상이 천사가 없고, 유토피아가 없는 것처럼, 이 민족에 희망이 없음을 밝혀내기 위해서 금괴의 행방을 찾아내겠다고 말할 때, 구분웅은 '이상'에게 그 자신이 초상화를 그렸던 것처럼 그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극 중 '구분웅'이 바라보는 시인 이상은 내면에 시대와 민족에 대한 열정을 냉소와 절망으로 감춘 인물이다.



그림 3 드라마 <이상 그 이상>의 한 장면

Figure 3. A scene in a drama <Yi Sang, more than Yi Sang>

따라서 이 드라마는 구분웅이 그린 이상의 초상화를 여러 번 비추고 있다. 이상의 초상화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드라마가 이상의 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까닭이다. 이상의 초상화로 드라마가 시작되고 끝날 뿐만 아니라, 드라마의 구조 자체가 하나의 이상 초상화로서 의미지어진다. 때문에 액자 내에 표구된 이상의 초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이 드라마가 그려내고자 하는 이상의 형상과 맞닿아 있다. 즉, 드라마 <이상 그 이상>은 극 중 '구분웅'의 시각처럼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며 민족을 사랑하였으나, 단지 냉소로 그 열정을 한 겹 가린 인물로서 '이상'을 재조명하고 형상화하여 드라마라는 액자 속에 표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드라마 <이상 그 이상>은 시인 이상의 표상화에 있어서 영화 <건축무한육면각체>와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한다. 영화 <건축무한육면각체>는 잘 짜여진 서사와 사건의 전개를 보여주고 있으나, 시인 이상의 일반적인 표상인 '박제된 천재'와 '괴짜 이상'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이상의 표상화 작업은 추리스틸러라는 영화의 장르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사건의 전개에서 이상의 시는 단서를 제시하는 메시지를 지닌 것으로서, 해독의 대상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드라마 <이상 그 이상>에서는 이상의 표상과 형상화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때문에 드라마는 전략적으로 이상의 초상화처럼 액자식 구성을 선택하였으며, 동시에 냉소적인 천재의 고정된 표상이 아닌, 그 안에 감추어진 이상의 내면을 복원하고자 시도하였다.

결국 <이상 그 이상>은 지속적으로 냉소와 절망으로 점철된, '박제된 천재'로서의 시인 이상의 고정관념에 가려진 다른 면모를 부각시키는 것에 집중한다. 그의 문학 텍스트에 드러난 냉소와 절망은 일종의 포즈화 전략으로써 시인 이상의 열망과 애정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역설하는 것이다. 한경애의 도움으로 식산은행의 약한 기반을 파헤치기까지 하였으나, 총독부의 추격으로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한 '이상'이 도주를 재촉하는 박태원에게 이대로 갈 수 없다며 거부하는 장면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드라마는 '이상'을 무력한 천재의 표상이 아닌, 내면에 열정을 숨긴 인물로 형상화하고자 한다. 비록 금괴를 찾지는 못하였으나 명성황후의 반지를 통해 명성황후가 살아있다는 풍문 또한 진실임을 깨닫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주지하는 결말과, 초

상화를 선물하며 ‘수영’에게 “비밀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다”고 말하는 장면은 다소 아쉬운 결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상의 마지막 대사, “세상은 참 명량한 암흑시대가 아니냐.”는 드라마가 표상하고자 하는 시인 이상과 식민지 시대를 함축하는 말로서 기능한다. 그러므로 드라마 <이상 그 이상>은 시인 이상을 중심인물로 내세움으로써, 기괴한 천재라는 시인의 표상과 함께 ‘암흑기’로 명명되어왔던 식민지시기를 새로이 조망하고자 한다는 독특한 시점의 전환만으로도 주목 받을 가치가 충분하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이상의 시와 그의 표상이 대중 영상매체에서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문학과 문학가의 표상, 그리고 영상물이 통섭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특히 이상의 표상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텍스트로 영화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과 드라마 <이상 그 이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영상 텍스트들은 그간 학계에서 비교적 덜 주목받아왔으나, 시인 이상과 식민지시기라는 역사적 시대를 어떻게 형상화하고자 하는가 관한 의미 있는 시선들을 제시하고 있는 까닭이다.

영화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은 추리스틸러 장르의 법칙을 충실히 따른다. 이 영화에서 이상의 시는 단서이자 풀어야 할 퍼즐로 활용된다. 여러 장면에서 이상의 시는 해석되고 변주되며, 인물들은 모두 시를 해독하는 데에 집중한다. 시의 해석이 사건의 해소와 연관되며 이상의 시를 효과적으로 서사화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영화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은 <MAD 이상 동호회>의 인물들이 이상의 죽음과 관련한 소설을 연재하는 장면들을 통하여 텍스트 내부의 텍스트를 재현해내고 현실과 가상, 텍스트와 텍스트, 현실과 텍스트의 사이를 넘나들며 그 경계를 무화시킨다. 이러한 영화의 시도는 탈중심적 문학을 지향하였던 다다이스트 이상의 작업을 포스트모던의 관점에서 새로이 재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리스틸러라는 장르적 법칙에 충실하여 이상의 시와 문학 텍스트 자체를 일종의 퍼즐로 묘사하고 새로운 서사를 꾀하였다.

영화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괴짜이자 천재인 이상의 표상을 추리스틸러

의 관습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드라마 <이상 그 이상>은 시인 이상의 표상을 다른 방식으로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시인 이상을 ‘박제된 천재’가 아니라 냉소와 절망 뒤에 민족과 시대를 향한 애정과 열정을 지닌 인물로서 재조명하고자 하는 드라마의 시선은 이상의 시를 독해하는 방식과 이상이라는 인물을 형상화하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드라마는 이상의 시는 방식으로서 각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공식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행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이상의 시 해석을 암호 해독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영화의 태도와는 정반대의 방식이다. 또한 이 드라마는 극 중 ‘이상’을 형상화함에 있어서 냉소의 포즈를 취하나 내면에는 열정을 지닌 인물로 그려냄으로써 시인 ‘이상’을 열정을 지닌 한 문학청년으로,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식민지 시대를 “명량한 암흑시대”로 재조명한다. 이는 암흑기와 괴짜로 인식되어왔던 일반적인 대중의 인식을 뒤트는 형상화의 방식이자, 새로운 식민지 시대의 표상화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시인 이상은 영상매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준 높게 형상화되었다. 그의 표상은 그 매체와 장르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형상화된다. 심지어는 추리서사를 택하고 있는 두 영상 텍스트인 영화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과 드라마 <이상 그 이상>은 장르적 관습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따라서 그 표상의 방식이 각기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상의 표상과 시가 서사의 전개와 그 매체가 성취해내고자 하는 미적 개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선택되고 조명되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이상’이라는 인물의 대중적 표상뿐만 아니라, 표상의 새로운 변주 가능성까지도 보여준다. 특히 이상이 식민지시기를 살았던 ‘천재’ 문인임을 감안한다면, 이상의 표상은 식민지시기라는 한국의 역사적 시기의 표상화 작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일하게 추리서사를 선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한 인물을 표상화하는 영화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과 드라마 <이상 그 이상>은 시인 이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명하고, 이로써 ‘식민지 기’와 그 시기를 살았던 청년지식인에 관한 새로운 시각의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사회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유의미한 텍스트들이다.

References

- [1] Son, Mi-young, A Study on the Cooperative Patterns of Literature and Drama-Focused on <Dokebi, The Lonely and Great God>, <Gentlemen's Dignity>, 2017.
- [2] Lee, Jong-Ho, Remembering the dead poet 'Yisang'-Focusing on the representation in recollections on Yisang, 2010.
- [3] Lim, Joon-seo, Study of a case of dramatizing Lee Sang's poets, 2007.
- [4] Kim, Joo-hyun, Collection of Yisang-poets, 2009.
- [5] Park, Hyun-soo, Yi Sang's Poetics of Avant-garde and the Cultural Semiology of Department Store, 2004.
- [6] Kim, Bong-keun, Political Interpretation of Yi Sang's "The Architecture Infinite Cube", 2016.
- [7] Shin, Hyoung-cheol, The Poetics of Eyes and Mirror in the Lee Sang's Poetry, 2008.

※ 이 논문은 2019년도 광운대학교 연구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